

AI-블록체인 강자 SDS, “디지털금융 플랫폼 완성”

삼성SDS ‘넥스파이낸스’ 공개
금융 컨시어지·디지털 페이먼트 등
첨단IT·혁신기술 사례 접목된 결과

삼성SDS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금융 플랫폼 ‘넥스파이낸스(Nexfinance)’를 공개하고 디지털금융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는 4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미디어데이’를 통해 “수년동안 금융회사 일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권 디지털금융전략팀장, 박재현 디지털플랫폼팀장, 유홍준 금융사업부장(부사장)이 넥스파이낸스의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삼성SDS 디지털금융의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넥스파이낸스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IPA) 같은 첨단 IT를 적용한 디지털금융 플랫폼이다. 삼성SDS가 검증하고 적용



삼성SDS 금융사업부장 유홍준 부사장이 ‘삼성SDS 디지털금융 사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SDS

한 여러 혁신기술과 사례가 접목된 결과물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 컨시어지 ▲디지털 아이덴티티 ▲AI 가상비서 ▲보험금 자동청구 ▲디지털페이먼트가 있다.

금융컨시어지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다. 개인

별 맞춤형으로 완결형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대화형 AI, 분석형 AI, IPA를 연계했다.

고객이 동의한다면 산재돼 있는 금융 거래 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모아서 고객에게 통합된 정보로 제공한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고객이 상품 가입을 원하면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입까지 완결형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 정보의 안전한 공유·활용 체계를 구성해 통합 본인 인증, 통합 로그인, 전자서명 등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확장하면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민원24 같은 공공서비스, 지마켓 같은 생활형 서비스까지 개인을 둘러싼 모든 거래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AI 가상비서와 보험금자동청구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자동화해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금 자동청구 과정을 거치면 지금과 같은 복잡한 단계가 두 단계로 바뀐다. 고객이 보험금을 자동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접수만 하면 추가적인 서류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제

공된 정보는 암호화돼서 보험사만이 해제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에 활용한다.

디지털 페이먼트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자의 충전, 전환, 적립, 송금, 결제, 출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타 포인트를 전환하거나, 선물화폐와 연계해서 충전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

삼성SDS 유홍준 부사장은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신기술을 접목한 넥스파이낸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금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도 모색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삼성카드 블록체인 사용자 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공동인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최근 생명보험협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AI 권위자’ 세바스찬 승·대니얼 리 영입

삼성전자 역량 강화 위한 인재 확보

삼성전자는 4일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AI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 대니얼 리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영입된 두 교수는 모두 부사장급으로, 삼성리서치(SR)에서 각각 AI 전략 수립 및 선행연구 자문, 차세대 기계학습 알고리즘·로보틱스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바스찬 승 교수는 뇌 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최고 석학 가운데 한 명으로, 미국 하버드대 이론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벨연구소 연구원과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물리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2008년 AI 컴퓨터를 구현하는 토대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상 공학상’을 받기도 했다.

AI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대니얼 리 교수는 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벨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01년부터 펜실베이니아대 전기공학과



세바스찬 승 교수(왼쪽)와 대니얼 리 교수.

교수로 근무했다. AI 분야 학회인 신경정보처리시스템(NIPS)과 인공지능발전협회(AAAI) 의장이자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연구원이다.

두 교수는 1999년 인간의 뇌 신경 작용에 영감을 얻어 인간의 지적 활동을 그대로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했고, 관련 논문을 세계적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트 부문 선행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SR)를 신설한 데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5개국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AI 우수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세운 기자

LG전자 냉장고, 호주 소비자평가 1위

양문형냉장고 ‘추천제품’ 선정
고성능·고효율 인정받아

LG전자 냉장고가 호주에서 고성능·고효율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호주의 유력 소비자 잡지 ‘초이스’가 LG전자 양문형냉장고에 최고 평가를 내리며 ‘추천제품’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단은 이 제품이 외부 온도가 변해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낮은 소음, 넓은 범위의 온도설정, 식재료의 신선도 등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양문형 부문 소비자평가 2위 제품도 LG전자 냉장고다.

LG전자는 상냉장·하냉동과 프렌치



도어에서도 1년여 동안 소비자 평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양문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프리미엄 냉장고 전 제품군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LG전자가 이처럼 냉장고에 차별화된 성능을 구현하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LG 냉장고의 핵심부품이자 프리미엄 냉장고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덕분이다.

모터가 ‘회전’ 대신 ‘직선’ 운동을 하는 리니어 컴프레서는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적어 일반 인버터 컴프레서보다 효율이 18% 이상 뛰어나고 부품 구조가 단순해 내구성도 유리하다. 또 모터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해 한 세대 앞선 핵심부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세운 기자



현대차 ‘올 뉴 싼타페’ 흥행질주… 최고급 모델 출시

중형SUV시장 3개월 연속 1만대 돌파
첨단 안전사양 더한 인스퍼레이션 모델

현대자동차가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최고급 모델을 선보인다. 싼타페는 중형 SUV 시장에서 3개월 연속 1만대를 돌파하며 1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올 뉴 싼타페’의 인기를 잇기 위해 디자인과 첨단 안전사양을 더한 최고급 모델 ‘인스퍼레이션’을 출시한다. 신형 싼타페는 지난 2월 출시된 후 현대차 내수 판매량을 이끌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만5581대가 팔려 국내 자동차 시장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다. 휴일이 많아 다른 달보다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5월에도 1만668대가 팔려 현대차 내수를 책임졌다. 싼타페 덕분에 현대차 1월부터 5월까

지의 국내 실적은 29만4887대를 기록,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싼타페 인기를 이을 인스퍼레이션 모델은 고급스러운 실내,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앞모습은 현대차 특유의 그릴과 범퍼 LED 안개등으로 세련된 모습을 갖췄다. L면부는 듀얼 머플러 등이 적용돼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인다. 실내는 버건디 킴링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가졌다.

또 신형 싼타페에 기본 적용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과 세계 최초로 적용된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가솔린 2.0 터보가 3580만원 ▲디젤 2.0이 3920만원 ▲디젤 2.2가 411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쌍용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

안정성·스타일 업그레이드

쌍용자동차가 안전성과 스타일을 강화한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이고 판매에 돌입했다.

4일 쌍용차에 따르면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은 기존 익스트림 에디션에 ▲사이드&커튼에어백 ▲스포티한 디자인의 18인치 블랙 알루미늄 등을 신규 적용했다. 쌍용차는 안전성과 외관 디자인 개선에 주력했다.

새롭게 선보인 베이지 가죽시트 패키지(옵션 적용)는 실내공간감을 확대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검은색 라디에이터 그릴, 고성능 모델



에 사용되는 카본파이버 소재의 아웃사이드미러커버, 스포츠알로이페달, LED 룸램프 등 기존 익스트림 사양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 전용 레터링도 추가됐다.

추가된 사양과 향상된 상품성에도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의 가격은 2649만원으로 유지했다. 기존 모델 가격은 트림별로 ▲KX 2243만원 ▲RX 2565만원 ▲DX 281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